종교문화학보 제18권 제1호 73-104쪽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1. 6.

가톨릭 생태영성과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전 의 찬*

목 차

Ⅰ. 서 론
Ⅱ. ‘공동의 집’에 대한 심각한 위협: 기후변화
Ⅲ.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영성
Ⅳ.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 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인류가 현재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돌아보는 ‘생태적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각성에 필요한 ‘생태 영성’을 성서의 가르침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연관에서 찾아보았다. 또, 생태신학자이자 지구학자인 토마스 베리 신부의 ‘생태대’ 영성과 프란치스교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를 통해 현대 환경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생태영성을 찾아보았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여기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실천하였다. 자연의 기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토마스 베리의 영성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과 다름이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찬미받으소서』발표하면서, 현대 환경위기의 본질과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영성을 제안하셨다.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는 생태환경 활동을 사목 활동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생태 감성’을 높여야 하며, 본당이 생태환경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가톨릭 생태공동체와의 협업과 연대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주제어 : 가톨릭, 생태영성, 생태환경 활동, 기후위기, 찬미받으소서

* 세종대학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학석사 학위논문(2021년 2월)의 내용을 축약한 것임.
논문접수일 : 2021. 5. 15. 논문심사일 : 2021. 5. 20. 게재확정일 : 2021. 6. 10.

Ⅰ. 서론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으로 평가보고서(IPCC AR1, 1990) 발표를 계기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 21)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1]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는 2021년 출범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2]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성장 시대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과 현재 경제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화석연료를 보유한 산유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상황이 다르며,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처럼 해수면 상승으로 국민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나라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

2015년 발표된『찬미받으소서』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를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지구를 “삶을 나누는 누이”와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3]

『찬미받으소서』반포하면서, 교황은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의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다.”[4]고 크게 우려하였다.

---

1)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key-aspects-of-the-paris-agreement. “At COP 21 in Paris, on 12 December 2015, Parties to the UNFCCC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o accelerate and intensify the actions and investments needed for a sustainable low carbon future.”… The Paris Agreement opened for signature on 22 April 2016 – Earth Day – at UN Headquarters in New York. It entered into force on 4 November 2016, 30 days after the so-called “double threshold” (ratification by 55 countries that account for at least 55% of global emissions) had been met.

2) https://unfccc.int/news/cop26-postponed. Bonn, 1 April 2020 - The COP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set to take place in Glasgow in November has been postponed due to COVID-19. ‘파리협정’ 발표에 따른 신기후체제는 2021년 출범 예정이었으나, 2020년 초부터 본격화된 <COVID19>에 따라 2022년 출범으로 연기됨.

3) 교황 프란치스코, *Laudato Si'*, 한국천주교주교회의,『찬미받으소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11-12항.

4) 위의 책, 11항.

기후변화와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자이기도 한 국가 또는 개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위기 해소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위기의 중대성을 깨닫고 그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자발적인 방법의 하나는 환경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태적 영성'을 우리 삶에 도입하는 것이다. '영성'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적인 인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가톨릭 생태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경에 있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생태영성 관련 말씀을 찾아보고, 프란치스코 성인과 토마스 베리 신부,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동의 집'에 대한 심각한 위협: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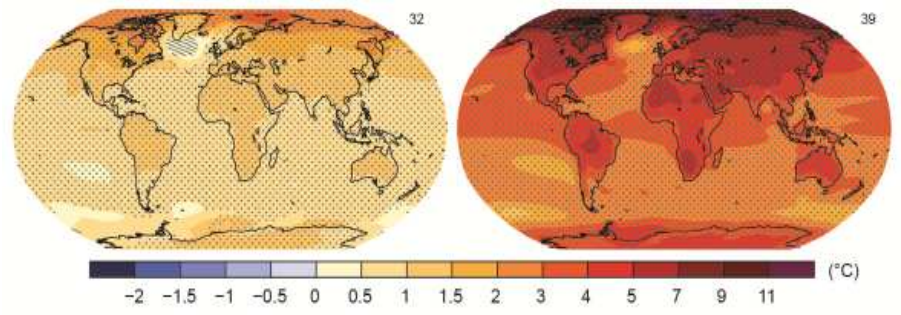
2018년 8월 1일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같은 날 서울의 온도는 39℃를 기록하여,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으며, 홍천은 40.6℃로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6년 7월의 세계 평균기온이 1880년 미국에서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137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4년 발표한 『제5차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해 초래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상태가 지속되면(RCP 8.5), 21세기 말에는 온실가스(CO_2) 농도가 지금의 2배를 넘게 되고,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상승폭의 5배가 넘는 3.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그림 2-1> 참조).

기상청은 1954년~1999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0년에 0.23℃ 올랐는데, 최근 10년(2001년~2010년)에는 0.5℃ 올랐다고 분석했다.[5] 2000년 이후의 상승폭이 그 이전 50년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온난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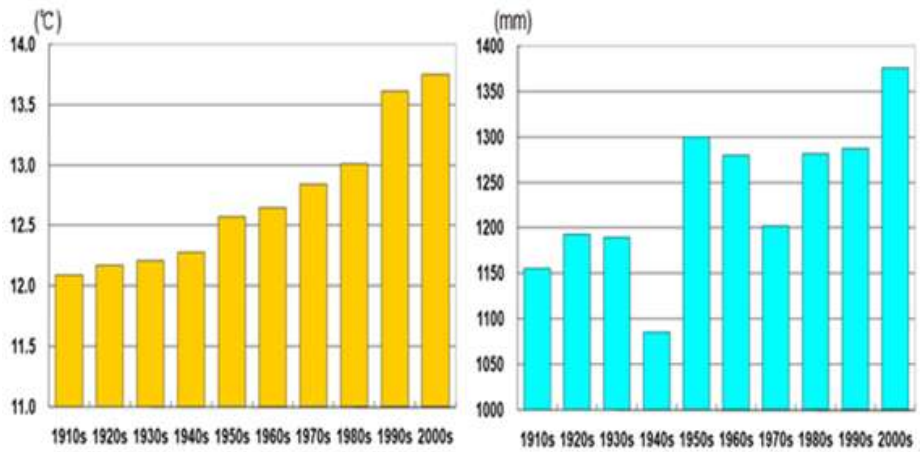
5) 기상청, 『한국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2015.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87℃ 상승하여 지구평균인 0.85℃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다.



(a) RCP 2.6 (b) RCP 8.5

〈그림 2-1〉 지표면 온도 변화(1986-2025 대비 2081~2100)[6]



〈그림 2-2〉 1912-2008년 한반도 6개 관측지점의 기온(℃)[7]과 강수량(mm) 변화[8]

6) IPCC, 2013: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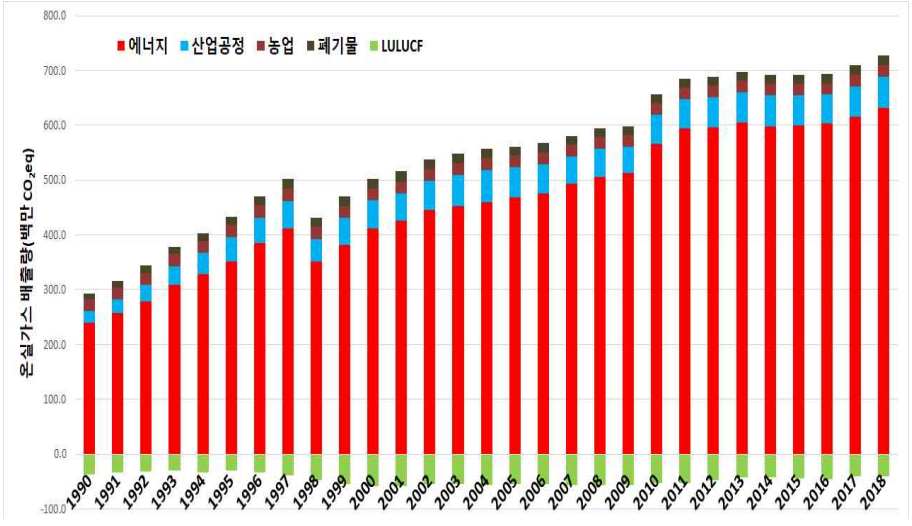
7)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변화 이해하기 II』(2009), 4쪽.

8) 위의 책, 8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728백만 톤으로 10위인 캐나다와 0.1% 차이인 전 세계 11위이다.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캐나다가 18% 증가할 동안 우리나라는 143%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미국의 배출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독일은 28%나 감소한 것과 비교가 된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IMF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 86.9%, 산업공정 7.8%, 농업 2.9%, 폐기물 2.3%로서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찬미받으소서』에서는 기후를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라고 정의하고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통하여 맞써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9] 특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고 생태계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10]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11]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2]



〈그림 2-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9)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3항.
10) 위의 책, 24항.
11) 위의 책, 25항.
12) 위의 책. 26항.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매출을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소비 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13] 성당과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결의에 찬 행동'을 통해서, 기후 임계점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14]

Ⅲ.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영성

생태 영성의 근본은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서에서 찾아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현세에서 삶은 살았던 성인 중 프란치스코 성인의[15] 생태 영성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근대 생태학자 중 토마스 베리는 이제 인류가 '신생대'에서 '생태대'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함으로써, 인류에 의해 파괴된 지구의 회복을 위한 생태영성을 제안하고 있다.

1. 성서적 자연관과 생태영성

오늘날 심각한 환경위기를 그리스도교의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도교로 인해서 환경 훼손이 발생하고 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지배'(창세 1,28, 9.1-3)는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일구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16]

>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

13) 교황 프란치스코, *Nostra Madre Terra*,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우리 어머니인 지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17쪽.

14) 김은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장신논단』, 36, (2009), 179～205쪽.

15) 유정원, 「빙엔의 힐데가르트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생태 영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 2014, 285쪽.

16)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67항.

> 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자식을 낳아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창세 1,26-28)

>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 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창세기 9,1-3)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각 단계마다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반복하신다(창세기 1,1-25). 하느님은 인류의 창조 외에도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발견하신다는 뜻이다.

>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25).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창세기 3,19)는 말씀은 인간과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 간의 본질적인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 또한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허약하고 덧없는 존재이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는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시편 103,15-16)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인간은 없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전도 1,3-4; 3,19).

전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좋다고 말씀하신 하느님이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17]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오직 하느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무생물이던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존중하고, 공생과 보전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 역사를 보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

17) 문영석, 「생태계와 화해에 관한 프란치스코 영성의 재조명」, 『종교연구』, 14, (1997), 76쪽.

다른 피조물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피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선을 존중하여야 한다.[18]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각과 새로운 관계(생태 윤리)를 설정해야 하면, 그것이 바로 지구의 치유를 위한 생태영성이라 하겠다.[19]

2.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 생태영성

1)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 존중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11월 29일 발표한 사도적 서한 "Inter sanctos praeclarosque viros"를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1182년~1226년)을 '생태계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주위에 빛나는 모든 것, 아름답고 밝은 것, 빛, 불, 맑게 흐르는 물, 꽃, 새들을 바라보았다.[20] 프란치스코 성인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회개의 상징으로[21] 물을 사랑하였다. 세례성사가 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돌 위나 바위를 지날 때이며 특별히 조심해서 걸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숲에서 나무를 벨 때는 형제들에게 뿌리채 뽑지 말고, 일부를 남겨 두라고 일렀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 새 가지가 돋아날 약간의 희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22]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는 삼라만상이 모두 '그리스도 온유하심의 자연적 반영이요, 그분의 형상들'이었기에, 성인은 새들과 짐승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동정심을 가지고 온화하게 대하였으며, 그들과도 사랑이 가득한 대화를 하였다.[23]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창조물의 민주주의'를 선포하였고, '자연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를 경험하였다.[24]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성인은 보잘 것 없

---

18)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67항.

19) 이동훈, 「지구의 치유를 위한 생태영성(3)」, 『사목정보』, 5(3), (2012), 90-94쪽

20) 김한용, 「21세기 그리스도교 생태신학의 기점에 관한 연구: 생태계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해석을 중심」(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21) 강정희, 「성 프란치스코의 생태신학적 영성 연구」(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09)

22) 오갑현, 「성 프란치스코의 생태학적 자연관과 영성 윤리」,『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25), (1989), 57쪽.

23) 위의 글, 57쪽.

24) 위의 글, 53쪽.

는 생명이라도 그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고 '형제'요 '자매'로 대했다. "내 형제자매 새들이여, 그대들은 창조주 하느님을 기꺼이 찬미해야 할지니, 그분은 너희들에게 따뜻한 깃털을 입혀 주시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날개를 주셨으니, 필요한 모든 것은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음이니라"[25]라는 강론을 새들에게까지 할 정도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피조물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었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고,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도 아니었다.[26] 그에게 자연과 세상 만물은 하느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함과 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표징이었다.[27] 자연은 "하느님의 현존을 비추는 거울"이고 하느님 가까이 닿게 해주는 '영성의 사다리'[28]이며 하느님의 발자취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 작가이며 '작은형제회' 회원인 토마스 첼라노는 성인의 자연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름다운 사물 안에서 아름다움 자체를 보았다. 모든 사물이 그에게는 선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그에게 외쳤다. 그 분의 발자국이 서려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그는 어디서나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갔다. 그는 홀로 모든 사물에서 사다리를 만들어 그 사다리를 밟고 옥좌로 올라갔다."[29]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연관에 따르면 모든 자연과 사물은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다. "자연 만물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이며, 하느님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을 통하여 인간이 사랑의 응답을 하길 기다리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를 바라신다."[30]는 것이다.

1224년 여름 죽음을 예감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라 베르나'산에 올라 작은 오두막을 짓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지냈다.[31]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의 기력이 점점

---

25) 김맛세오, 「오늘 우리 삶에 표가 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 『사목정보』, 7(3), (2014), 120-123쪽.

26) 유정원, 「빙엔의 힐데가르트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생태 영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 (2014), 273-297쪽.

27) 위의 책, 287쪽.

28) 손 맥도나휴, 황종렬 옮김, 『땅의 신학, 새로운 신학에로의 부름』(왜관: 분도출판사, 1993), 219쪽.

29) 토마스 첼라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꼬의 생애』(왜관: 분도출판사, 1986), 371쪽.

30) 민성기, 「프란치스코와 자연, 그리고 보편적 형제애」, 『신학전망』, 123, (1998), 55-56쪽.

31) 이때 성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룩한 성흔(聖痕)을 몸에 남겨주었다고 전한다.

쇠잔하고 고질병인 눈병이 도져서 성인을 괴롭혔다. 고통 속에서도 성인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였는데, 오두막에서 혼자 눈먼 상태로 누워있으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태양의 찬가」이다.[32]

「태양의 찬가」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창조계 전체와의 깊은 가족적 유대의 정신"을 잘 보여 주고 있다.[33] 성인은 태양의 노래에서 서정적인 정신이 충만해 태양이건 달이건, 별이건, 땅이건, 죽음이건, 생명이건 모두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른다. 우주의 모든 것이 짝지어 서로 화해된 상태이다. 달과 별들은 태양과 짝짓고, 물은 바람과 땅은 불과, 죽음은 사랑과 짝지어있다. 모두 다 친척이라서 하느님 대전 앞에서 하나의 유일한 가족을 이룬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불려지는 것들 사이에 존재적 친교에 관한 기쁨의 표현이다.[34]

2) 생태적 회심: 피조물 존중과 자연과 화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위대함은 자연에 대한 영성을 실천하였다는데 잇는 것이다.[35] 프란치스코는 바위(1코린 10,4)로 불리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고, 십자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수도회 형제들이 땔나무를 벨 때는 나무를 통째로 자르지 말라고 말하였다. 풀과 꽃들을 보며 "이사이의 뿌리에서 나온 햇순"(이사 11,1)을 떠올렸다.[36] 창조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밭 둘레도 그대로 놔두라고 하였고, 길에서 만난 벌레도 "구더기 야훼의 종"(시편 22,7)을 묵상하고[37],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을 보고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양"(요한 1,36)을 묵상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벌레 한 마리도 발에 밟히지 않도록 옮겨주었고, 꿀벌들이 겨울 추위에 굶어 죽지 않도록 꿀을 주었으며, 모든 동물을 형제자매라 부르며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연과 나눈 친밀한 교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론을 위해서 성인께서 제비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니 순종하였다는 일화도 있다.[38]

---

32) 헤르만 헤세, 이재성 보나벤투라 옮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서울: 프란치스코출판사, 2014), 62-63쪽.

33) 강정희, 앞의 논문.

34) 오갑현, 앞의 책, 63-64쪽.

35) 유정원, 앞의 책, 288쪽.

36) 토마스 첼리토, 앞의 책, 136쪽.

37) 위의 책, 135쪽.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과 공동체적 삶을 살았으며, 전형적으로 생태학적 정신과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찬미와 사랑, 존중의 혼을 불어넣었다. 인간과 자연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 다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재화해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전적으로, 자연과 타인 앞에서 나의 오만한 대립적 자세를 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커다란 겸손함을 지니고, 감사드리며, 그들을 섬겨라"라는 「태양의 찬가」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대자연과 인간의 대립에 대한 해결의 길을 제시한다.

자연을 향한 생태학적 윤리 행위의 최고 가치는 '생존'에서 출발하는 모든 자연 생태계가 더불어 사는 '공생'이다. 자연도 인간과 더불어 함께 창조된 공동 피조물로서, 똑같이 하느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산다는 면에서 인간과 피조물의 상호 의존 생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39]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모든 존재에 대해 사랑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과 부드러움, 겸손과 평화 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생활화될 때,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회개로서 일반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40]

프란치스코 성인은 임종하면서 "맨땅에 눕게 하옵소서"라고 유연했던 것처럼,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포기할 정도로 '완전한 가난'을 실천하였다. 완전한 가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완전히 당신을 봉헌한 예수의 가난이며, 우리 안의 욕망까지도 내려놓는 가난이다.[41]

3. 토마스 베리의 '생태대'

토마스 베리[42]는 6천 5백만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신생대(Cenozoic)가 끝나가고 생태대(Ecozoic)라는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제도도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43]

---

38) 성 프란치스꼬 한국관구, 『성 프라치스꼬의 잔 꽃송이』(왜관: 분도출판사, 1975), 85-90쪽.

39) 오갑현, 「성 프란치스코의 생태학적 자연관과 영성윤리」,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25), (1989), 71-72쪽.

40) 위의 책, 76쪽.

41) 김대식,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의 영성과 생태심리학」, 『사목정보』, 6(10), (2013), 122-127쪽.

42) Thomas Berry(1914~2009)는 가톨릭 사제(예수고난회)이며 가톨릭 생태 사상가이다. 스스로 지구학자(Geologian)라고 하였다.

1) 현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원동력

베리는 우리는 현재 심각한 문화적 질병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화적 치유가 필요하며, 문화적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 에너지원을 '공포와 매혹'이라고 하였다.[44]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엄청난 공포를 느껴야만 그 중독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문명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꿈의 낙원(Wonder world)"이라는 환상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꿈에서 깨어나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꿈이 낙원"이 아니고 "쓰레기 더미(Waste world)"였던 것이다. 상업광고의 일관된 메시지는 소비주의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복(至福)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가용을 구매하고 보석을 사게 되면, 우리는 파멸로부터 진복(眞福)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45]

산업문명 시대에 세계는 해체되고 모든 것이 더럽혀 지고 있다. 도시는 매연으로, 더러운 환경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되었다. 온실효과로 금세기 말에 북반구의 평균온도가 3~10℃ 올라가게 되었다. 베리는 우리에게 숨 쉬는 공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상쾌함인지, 생명 위협에 대한 두려움인지? 묻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위협뿐 아니라 국가적 재난에도 종교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46]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이런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적 민감성도 말라버렸으며, 상상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지금 가스에 중독되어 몽롱해진 사람이 목적지도 없이 계속 걷고 있는 것과 같다. "잠들면 죽는다. 깨어있어야만 한다. 깨어나야 한다."[47]

토마스 베리(1914~2009)는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세계관이나 우주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

43) Stephen Dunn, C.P. and Anne Lonergan (Eds), *Befriending the Earth: A Theology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김준우 역, 『신생태를 넘어 생태대로』(서울: 에코조익, 2006), 19쪽.

44) 위의 책, 151쪽.

45) 같은 책.

46) Stephen Dunn, C.P. and Anne Lonergan (Eds), 앞의 책, 152쪽.

47) 같은 책.

48) 이재돈, 「토마스 베리의 생태사상」, 『기독교 사상』, (2010), 265-267쪽.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현재는 벌어지고 있는 파괴는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규모이며, 끔찍한 중독증세"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49]

2) 생태대의 조건들

베리는 생태대를 매혹적인 세계로 설명하면서, 창조적인 미래 세계로서 생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50]

첫째: 이 우주가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교제(communion of subjects)라고 하였다. 현대의 산업문명은 약탈적이며 "만물의 내적인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좋은 본보기"라고 하였다.[51]

둘째: 지구는 단편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 지구를 단편적으로 살릴 수 없으며, 어떤 생명체도 단편적으로만 보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함께 살아남지 않는 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구가 총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52]

셋째: 베리는 지구가 우리에게 오직 한번 주어지며, 우리가 지구를 죽인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강조하였다. 누구도 멸종된 종자들을 다시 살려내지는 못하며 멸종된 종자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6천만 년이 소요된 열대우림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열대림은 다시 되살릴 수 없는데, 우리는 현재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실체인 지구를 파손시키고 있다고 하였다.[53]

넷째: 인간이 모든 활동은 "지구가 일차적이며 인간은 부차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생태계 문제 접근에 있어서 베리는 자연의 생태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인간의 생태학을 자연의 생태학 안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갖고 있다.[54] 만약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종교나 교육, 경제, 의학 등 인간이 이룬 모든 것은 허사가 말며, 우리 자신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구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55]

---

49) Stephen Dunn, C.P. and Anne Lonergan (Eds), 위의 책, 153쪽.

50) 같은 책.

51) 위의 책, 154쪽.

52) Stephen Dunn, C.P. and Anne Lonergan (Eds), 앞의 책, 154쪽.

53) 위의 책, 155쪽.

54) 위의 책, 156쪽.

55) 피승윤, 「토마스 베리 사상에 나타난 생태윤리 연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0쪽.

다섯째: 베리는 지구의 전체적인 기능이 신생대(Cenozoic)에서 생태대(Ecozoic)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였다. 신생대에 지구의 생명이 크게 확장되어 그 절정에 도달하였지만, 신생대 발달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없었다. 그러나 '생태대'에서는 인간이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자연의 기능을 통제하는 대신 자연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개척하게 하는 과학자보다, "유기체를 향한 감정"이라고 하는 생태 감수성이 예민한 과학자가 필요하며, 새로운 과학은 인간의 활동과 지구의 활동이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56]

여섯째: 우리는 자살, 살인, 종족학살(genocide)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지구학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윤리적인 원칙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베리는 생명계를 압살하는 종자학살과 이 지구를 살해하는 지구학살이 절대악이라는 윤리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57] 우리는 생태계 파괴(biocide)와 지구 파괴(geocide)을 '절대악'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윤리원칙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베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종교가 자연세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발전시켜야 한다.[58]

베리는 '생태대의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구를 병들게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적절히 항의하기 위해서이다.[59] 새로운 법조인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법학은 인간 사이(inter-humans)의 문제들에 관한 것뿐이지, 종자들 사이의(inter-species)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주의 이야기와 그 모든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베리가 말하는 우주의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이며, 나무의 이야기이며, 강들의 이야기이며, 별과 혹성과 모든 삼라만상의 이야기이다.[60]

베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생태대에 적합한 새로운 종교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것이다.[61] 현재의 종교는 소비주의적인 경제, 교육, 의술, 법 등에 몰두해 온 종교들이기 때문이다. 베리는 새로운 종교가 지구 전체 공동체가 인간의 공동체보다 신성한 공동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62]

---

56) Stephen Dunn, C.P. and Anne Lonergan (Eds), 앞의 책, 157쪽.
57) 위의 책, 160쪽.
58) 이재돈, 앞의 글, 273쪽.
59) 위의 책, 160-161쪽.
60) 위의 책, 162쪽.
61) 같은 책.
62) 위의 책, 163쪽.

베리는 모든 중요한 전환기에는 전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는데,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하여 전혀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였다. 산업체제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락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빠져나가려 하고, 우리는 지구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 쓰려 하면서 전혀 보답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유익한 자원을 얻어 쓰고 유독(有毒)한 것으로 갚고 있다는 것이다.[63]

현재 단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경제를 개혁하며, 교육, 법, 종교를 새롭게 변혁하는 것은 희생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야만 한다. 희생정신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64]

우리는 개인적 자아, 가족적 자아, 그리고 우주적 자아를 갖고 있는데, 희생이란 이 중에서 가장 큰 자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지구의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키는 단계에 들어왔으며, 우리 자신도 생태대를 위하여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베리는 얘기하고 있다.[65]

4.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복 선언 : 『찬미받으소서』

1) 『찬미받으소서』 배경

2015년 6월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서문과 6장 26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를 언급하면서, '우리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아름다운 어머님"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66]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때문이며, 우리가 마치 지구의 '주인'이요 '소유주'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67]

『찬미받으소서』는 그동안 교회의 여러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인간이 자연을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68]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생태적 회

63) Stephen Dunn, C.P. and Anne Lonergan (Eds), 앞의 책, 207-208쪽.
64) 위의 책, 210쪽.
65) 위의 책, 212쪽.
66)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항.
67)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항.
68)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4항.

개'를 요청하였으며 "참다운 인간생태론의 윤리적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인용하였다.[69]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소유로 여겨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피조물이 손상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70]

『찬미받으소서』는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에서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의 "환경문제의 윤리적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 환기"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71] 또, 프란치스코 성인을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소개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빈과 검소를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72]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긴급한 과제를 "지속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이라고 강조하였다.[73]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취약함의 관계', '세상의 모든 것의 상호 연결에 대한 확신',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경제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모든 피조물의 고유가치', '버리는 문화와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하여 되풀이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74]

2) 생태환경 현황과 복음, 그리고 생태위기 근원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는 기후변화, 쓰레기, 물, 생태계 다양성과 인간 삶의 질, 세계적 불평등, 미약한 반응과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기후'의 공공재 인식과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화석연료 기반 개발과 산림파괴 증가의 위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75] 온난화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였으며,[76] 기후변화로 인하여 특히, 개도국과 가난한 이들이

69)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5항.
70)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6항.
71)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9항.
72)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1항.
73)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3항.
74)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6항.
75)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3항.
76)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4항.

피해를 보게 됨을 우려하였다.[77]

교황께서는 현재의 생산/소비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78] 또,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로 야기된 지구온난화가 아프리카와 같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적하였으며,[79] 기후변화에 관한 선진국의 '차등적 책임'을 강조하였다.[80]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은 성경적 설명의 지혜,[81] 피조물의 메시지,[82] 예수님의 눈길[8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에서는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84]와 현대 인간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85]

3) 통합생태론 그리고 접근법과 행동 방식

4장에서는 도시 교통에 의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86] 수직적 평등을 강조하면서, 환경은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87]

5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88] 기후변화에 대한 강대국들과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89] 또,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이 차별화된 책임 명시하였으며,[90] 탄소배출권의 투기 유발에 대하여 우려하였다.[91]

<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를 위하여,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92] 기후변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93]

---

77)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5항.
78)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6항.
79)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51항.
80)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52항.
81)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65-75항.
82)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84-88항.
83)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96-100항.
84)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06-114항.
85)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15-121항.
86)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53항.
87)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59항.
88)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65항.
89)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69항.
90)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70항.
91)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71항.

4) 생태 교육과 영성

제6장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향하여>로서, 생활양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매는 도덕적인 행위"임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교육이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94] 교육이 생활양식의 참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강조하였다.[95]

5. 공동선의 추구와 생태공동체

현대의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하며, 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다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원인 분석이며, 표피적인 해결방안이기 때문이다.

현대 기후위기는 보다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과도하게 화석연료와 자원을 함부로 사용한 결과이다. 환경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동등하게 사용하여야 할 자연의 보고이며, 인간에게 땅을 '지배'하라고 한 것은 '봉사, 지혜 그리고 사랑으로 지배'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환경에 관한 '공동선'이다.[96]

현대 기후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공동목장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97]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선을 현장에서 실현하며 함께 살아가는 '생태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와 인식, 성서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 공동체 구성의 핵심인 '공동선'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학습, 인식변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

92)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80항.

93)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81항.

94)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11항.

95)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206항.

96) 캐나다 앨버타 주교회의 생태에 관한 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에 대한 찬미: 창조보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편찬,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2012), 597-600쪽.

97) Garrett Hardin이 1968년 *Science*에 실은 The Tradegy of the Commons에서 유래한 것으로, 개방된 공유지에 소를 기를 때, 소를 많이 기를수록 이득에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어느 한계를 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손실은 개인에게 부분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면서 환경문제의 본질을 설명한 것이다.

동일한 생태영성을 추구하는 ‘생태공동체’에는 함께 모여 사는 생활공동체부터, 본당 차원에서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하늘땅물벗’, 교구 시스템을 벗어나 대내외 생태환경보전 활동을 하고 있는 ‘가톨릭기후행동’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생태공동체가 가능하다.

Ⅳ.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 방안

1.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 전환의 필요성

1)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 평가와 전환이 필요성

1,6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한국천주교의 대표적인 생태환경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과 2019년 활동을 시작한 ‘가톨릭기후행동’에 대한 평가가 제일 높았다. 반면, ‘4대강 반대 운동’과 ‘탈핵운동’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과 같이 대안이 있는 생태환경 활동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서는 평신도 중심의 생태환경 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성직자, 수도자 등 ‘누가 중심이 되어도 괜찮다.’고 응답도 높았다. 설문 조사 결과, 생태환경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당 차원의 환경보전 교육 및 실천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일상에서의 환경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구 차원의 생태환경 활동이 미흡하며, 본당 차원의 생태환경 활동과 신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찬미받으소서』 발표를 계기로, 2017년 하늘땅물벗’이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인준되었으며, 서울대교구 일부 본당과 신학교 등에서 ‘하늘땅물벗’(본당벗)이 활동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는 생태환경 활동을 사목 활동의 중심에 위치시켰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생태영성’ 전공 성직자가 다수 육성되었다. 또, 서울대교구의 경우 생태환경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도 출범하여,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은 기반을 갖추었다. 이제 생태환경 활동을 사목 활동의 중심에 두고, 신자들의 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생태환경 활동의 근본: 생태영성

1) 성서에서 찾는 생태영성

현재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뿐 아니라 지구, 대기, 물 등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태윤리'이다. '울부짖고 있는 누이'[98]인 병든 지구를 치유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어머니'[99]로 회생토록 하기 위한 가치관이 바로 '생태영성'이다.[100]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은 '생태영성'의 근본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며, 생태영성의 근본은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서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다른 피조물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피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선을 존중하여야 한다.[101] 그리고 공생과 보전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 역사를 보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102]

생태환경 활동의 영성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서 구절로, '심층면담'의 응답자의 ⅔는 창세기 1장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를 '생태영성'과 관련하여 가장 뜻깊은 말씀으로 선택하였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103]를 중요한 '생태영성' 구절을 제시하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의 번성 책임을 인간에게 맡긴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도 있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의 완전성,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 모든 피조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피조물 사이의 조화와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번성을 위해서도

98)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항.
99) 같은 글.
100) 이동훈, 「지구의 치유를 위한 생태영성(3)」, 『사목정보』, 5(3), (2012), 90-94쪽.
101)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67항.
102) 위의 글.
103) 창세 1,28.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울 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3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4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창세 1,1-3).
>
> ……
>
> 24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 ……
>
> 31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창세 1,1-31).

예수님이 가장 크게 강조한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여기서, 이웃을 모든 피조물로 확대한다면 ‘하느님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연 사랑’이 되는 것이다.

>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 39 둘째도 이와 같다.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마태 22,34-40).

‘복음’이란 바로 ‘하느님 사랑’이고 ‘이웃(자연) 사랑’이며, 하느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하신 것은((마르 16,15)‘하느님 사랑’과 ‘자연 사랑’을 모든 피조물에 전하라는 명령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태환경’ 활동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태영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한 아버지 ‘하느님’의 돌봄을 받는다고 강조하셨다.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하느님을 창조주이시며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마르 16,15).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

령하신 것은 '사랑'과 '복음'을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1 요한 3,23).
>
>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주신 사명;"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며(1 코린 15,28) 세상 만물은 탐욕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자 하느님이 현존하는 실재로서 깨닫고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104]

2) 성인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찾는 생태영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연관에 따르면 모든 자연과 사물은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다. 자연 만물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이며, 하느님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을 통하여 인간이 사랑의 응답을 하길 기다리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105]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전체적인 기능이 신생대(Cenozoic)에서 생태대(Ecozoic)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 생명계를 압살하는 종자학살(biocide)과 지구를 살해하는 지구학살(geocide)이 절대악(絕對惡)임을 인식하는 새로운 윤리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자연의 기능을 통제해서는 안되며, 자연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풀잎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풀잎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106]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Laudato Si')』는 시편에도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노래한「태양의 찬가」[107]에서 인용한 것이다.『찬미받으소서』는 서문과 6장의 26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에서는 현재 지구의 생태환경 현황과 위험성

104)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00항.
105) 민성기,「프란치스코와 자연, 그리고 보편적 형제애」,『신학전망』, 123, (1998), 55-56쪽.
106) Stephen Dunn, C.P. and Anne Lonergan (Eds), 앞의 글, 150-154쪽.
107) 최민순,『밤』(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63; 개정판 1986), 166-167쪽.

을 밝혔다.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에서는 현대 생산과 소비문화의 변화가 시급하며, 가난한 나라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장 통합생태론”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수직적 평등을 강조하고, “제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6장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향하여>로서, 생활양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매는 도덕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교육이 생활 양식의 참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08]

3.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 방안

1) 생태환경 교육과 활동의 중심을 본당으로

『찬미받으소서』의미와 실천방안과 관련된 강좌의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 62%의 응답자가 ‘가까운 곳에서 열린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생태환경 보전 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잠재적 참여자와 소극적 참여자가 전체의 82%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태환경 보전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본당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참석하겠다’는 소극적 참여자가 61%였으며, 참여 의사가 없는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고려할 때, 가톨릭 생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생태 감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찬미받으소서』의미와 실천방안과 관련된 강좌의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 62%의 응답자가 ‘가까운 곳에서 열린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신자들의 생태환경 참여도가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찬미받으소서』 강좌를 본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생태환경 교육은 정보제공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생활 양식의 참다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신천하도록 고무해야 합니다.[109]

2) 생태공동체 연대와 생태영성 강화

현재 운영되는 생태공동체는 근원성, 대중성, 접근성 등에서 다양하다. ‘예수살이공동체’의 무소유공동체인 ‘산위의 마을’은 가장 원안적인 공동체로서 현대의 소비문화에서 벗어나서 공동 기도, 공동 노동, 공동 식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

108) 교황 프란치스코, 앞의 책, 1-264항.

109)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27-28쪽.

‘성필립보생태마을’은 다음 해 피정 일정이 즉시 예약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성필립보생태마을’의 후원단체인 ‘되살림’은 회원 1만 2천명이 넘으며, 유기농 식품은 인기가 매우 높다. 두 마을은 원안성과 대중성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 마을에서의 ‘살아보기’와 피정 등을 통해서 체감형 생태영성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영성 체험 장소로 농촌형 자립 생태공동체인 ‘만나생태마을’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교구의 ‘하늘땅물벗’은 생활형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본당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과 실천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교구에서 ‘하늘땅물벗’을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인준하고 본당 위주의 생태환경 활동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톨릭기후행동’은 참여형 생태공동체로서 교구의 범주를 벗어나서 ‘기후변화’라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생태환경 활동 주제이므로, 앞으로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환경 활동의 본심을 잃지 않으려면, ‘산위의 마을’과 같은 근원성을 중시하는 생태공동체의 존속과 역할이 중요하다. 대중성이 높은 ‘성필립보생태마을’과 근원성이 강한 ‘산위의 마을’의 협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땅물벗’이 우리나라 전 교구로 확대된다면, 본당 기반 평신도 생태환경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며, 한국 전 교구의 ‘하늘땅물벗’이 참여하는 한국가톨릭 생태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성필립보생태마을’과 ‘산위의 마을’의 피정을 ‘하늘땅물벗’의 회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면,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은 보다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기후행동’은 한국천주교 생태환경 활동과 외부 시민 환경단체와 연대 활동의 연결점이 될 수 있으며, 가톨릭 생태환경 내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톨릭 내 NGO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임이 분명해졌다. 기후위 기는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일종의 덫이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손쉬운 해결방안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덫은 점점 더 조여 오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한 ‘생태학적 각성’이 필수적인데, 생태학적 각성에 필요한 ‘생태 영성’을 성경 말씀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연관’에서 찾아보았다. 또, ‘생태대’로 전환을 강조한 토마스 베리의 영성과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에서 현대 환경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생태영성을 찾아보았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등 모든 피조물을 우리 ‘형제자매’로 여기며 인격적인 만남을 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기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의 영성도 예수님의 ‘이웃 사랑’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과의 인격적 만남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찬미받으소서』에서 “로마 주교(교황)로 선출되면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저의 길잡이요 영감으로 잡았습니다.”라고 밝히셨고, 프란치스코 성인을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사셨던 신비주의자이며 순례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110] 즉, 모든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직적 사랑’이지만, 인간이 이웃과 자연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평적 사랑’이기도 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는『UN기후변화협약』의「파리협정」채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태환경 리더들은 이 회칙을‘시대적 복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도 인준받은 바 있다.『찬미받으소서』와 가톨릭의 생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천주교 전 교구에서 교구장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톨릭 생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생태 감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찬미받으소서』강좌를 본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본당이 생태환경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본당 사제들의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제 양성과정에서 ‘생태환경’ 관련 과목의 이수가 필수화되어야 하며, 본당 사제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 한국천주교 전 교구 차원에서『찬미받으소서』의 중요성을 밝히고, 각 교구장이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110) 교황 프란치스코,『찬미받으소서』, 10항.

가톨릭 생태공동체에는 ‘산위의 마을’과 같이 근원성이 강한 곳도 있고, ‘성필립보생태마을’과 같이 대중성이 강한 곳도 있다. 또, ‘하늘땅물벗’과 같이 본당 평신도 중심의 생태공동체도 있고, ‘가톨릭기후행동’과 같은 참여형 생태공동체도 있다. 이러한 생태공동체의 다양한 협업과 연대 활동을 통하여, 가톨릭 생태환경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고갈시키고 있는 석유, 광물 등 모든 자원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과 함께 써야 할 ‘공유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편해서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도 있었던 ‘지속가능 에너지’인 태양과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의 사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석유 힘으로 가면서 오염물질을 잔뜩 내뿜는 자동차 대신 두 발로 힘차게 내딛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못지않게 지구 생태계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중심인 사제들이 변해야 하며, 각 신학대학에 「환경신학」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성당 지붕에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되고, 모든 종탑 위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날이 와야 한다. 로만 칼라를 한 신부가 자전거를 타고 봉성체하러 다니고, 경건한 복장의 수녀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정희.「성 프란치스코의 생태신학적 영성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09.

교황 프란치스코, Laudato Si’. 한국천주교주교회의.『찬미받으소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Papa Francesco, Nostra Madre Terra.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우리 어머니인 지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국립기상연구소.『기후변화 이해하기 Ⅱ』. 2009.

기상청.『한국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2015.

김대식.「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의 영성과 생태심리학」.『사목정보』, 6(10), 2013. 122-127쪽.

김대식.「쇠진하는 생명의 빛과 생태공동체로서의 본당」,『사목정보』, 1(8), 2008. 156-159쪽.

김맛세오.「오늘 우리 삶에 표가 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사목정보』, 7(3), 2014, 120-123쪽.

김은혜.「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새로운 인간주의를 통하여」.『장신논단』, 36, 2009, 179-205쪽.

김한용.「21세기 그리스도교 생태신학의 기점에 관한 연구: 생태계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해석을 중심」.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문영석.「생태계와 화해에 관한 프란치스코 영성의 재조명」.『종교연구』, 14, 1997, 73-84쪽.

민성기.「프란치스코와 자연, 그리고 보편적 형제애」.『신학전망』, 123, 1998, 51-67쪽.

성 프란치스꼬 한국관구.『성 프라치스꼬의 잔 꽃송이』. 왜관: 분도출판사. 1975.

손 맥도나휴·황종렬 옮김.『땅의 신학, 새로운 신학에로의 부름』. 왜관: 분도출판사. 1993.

오갑현.「성 프란치스코의 생태학적 자연관과 영성윤리」.『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25), 1989, 52-76쪽.

유정원.「빙엔의 힐데가르트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생태 영성」.『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63, 2014, 273-297쪽.

이동훈.「지구의 치유를 위한 생태 영성(3)」.『사목정보』, 5(3), 2012, 90-94쪽.

이재돈.「토마스 베리의 생태사상」.『기독교사항』, 2010, 264-274쪽.

최민순.『밤』.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개정판 1986.

캐나다 앨버타 주교회의 생태에 관한 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생명에 대한 찬미: 창조보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편찬,『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2012, 597-600쪽.

토마스 첼라노.『아씨시의 성프란치스꼬의 생애』. 분도출판사. 1986. 371쪽.

피승윤.「토마스 베리 사상에 나타난 생태윤리 연구」. 가톨릭대학교 학위논문,

2012.

헤르만 헤세, 이재성 보나벤투라 옮김.『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서울: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4.

Stephen Dunn, C.P. and Lonergan Anne (Eds), Befriending the Earth-A theology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김준우 역,『신생태를 넘어 생태대로』, 서울: 에코조익. 2006.

IPCC. Climate Change 2013: Summary for Policymakers. 2013.

Abstract

Overcome of Climate Emergency by Catholic Ecological Spirituality and Ecological Environmental Activities

Jeon, Eui-chan
(Professor of Department of Climate & Energy, Sejong University)

In order for mankind to escape from the current climate emergency, "ecological awakening" must be preceded by reflecting on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Ecological spirituality, which is needed for ecological awakening, was found in the scriptures of the Bible and in Saint Francis's teaching on nature. In addition, we looked for ecological spirituality to escape the present environmental crisis through the Spirit of Ecology of Father Thomas Berry, an ecological theologian and geologist, and '***Holy See***' - Encyclical Letter 'LAUDATO SI' of the Holy Father Francis on Care for Our Common Home.

The words Jesus sai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were practiced by Saint Francis as a personal encounter that regarded all creatures as brothers and sisters. Thomas Berry's spirituality, which calls for accepting, protecting and caring for the function of nature as it is, is the same as that of Saint Francis. Pope Francis proposed the ecological spirituality to overcome the climate emergency, announced by the '***Holy See***'.

Encyclical Letter 'LAUDATO SI'has placed ecological environmental activities at the center of pastoral activities.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emergency by revitalizing Catholic ecological environmental activities, the "ecological sensibility" of believers should be raised, and the local catholic church should be the center of ecological environmental activities. In addition, cooperation and solidarity activities with various Catholic ecological communities should be promoted.

Key words : Catholic, Ecological Spirituality, Ecological Environmental Activities. climate emergency, LAUDATO SI, Holy See

토론문

가톨릭 생태영성과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최 지 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종교 활동에서 사회성이 결여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존중과 이해를 받기 어렵고 외면받기 십상이다. 예컨대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면서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광장 집회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코로나 집단발병 위험에 대한 관리를 종교 탄압이라며 방어하는 그들의 태도는 종교가 사회를 외면하고, 무소불위의 것 인양 위력을 발휘하려 할 때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줄 뿐이었다.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을 배려하지 않는 종교 행위는 지탄의 대상일 뿐이다.

과거 신분제 시대와 지금과의 비교, 수십년 전과 지금의 여성, 노동권, 인권 현황, 사회복지 제도 등의 예를 보더라도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는 성장, 성숙해 왔다. 신앙인 유무와 상관없이,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 받고, 사회 공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사회가 성숙해 갈 수 있었던 보루에 종교가 있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정치 혹은 사회적 질서와 규범을 만들고 복무하게 하는 규칙을 넘어선, 인류가 보편적 인권을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에 적어도 종교계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교는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직면할 때 본질의 문제를 성찰해 왔다. 시간과 경계를 관통하면서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종교계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실제 국제NGO 등 시민단체들이 사회에 필요한 주요 메시지를 바랄 때 교황청, 종교 지도자를 바라봐 왔다.

발제문에서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공동의 집'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사회공동체가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방안으로써 가톨릭 생태영성과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가 제안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가톨릭 바깥에서 오히려 더 주목했을 정도이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당사국 총회, 신기후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발표된 회칙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다.

분명 우리사회는 성장 성숙해 왔지만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를 만들면서 인류의 미래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활을 유지해 간다면 세기말까지 지구평균 온도 4℃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사용가능한 물 30～50%감소, 해안침수 피해 3억명, 생물종 50%이상 멸종위기, 아프리카 농산물 15～3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를 여러 연구 결과물을 통해 경고 받고 있다.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폭염, 혹한, 빙하붕괴로 인한 산태와 인명사고,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대규모 산불,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사망 인구 증가 등 위기 한 복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세기말까지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탄소중립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기후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상승 정도와 충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 그리고 적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발제문을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각성이 필요하고, 이의 토대가 되는 생태영성 그리고 가톨릭 내에서의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 토마스 배리의 ‘생태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환경 활동 활성화가 이루지기 위해서는 생태 감성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제 양성과정에서의 ‘생태환경’ 관련 과목 이수 등 사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교구 차원에서 ‘찬미받으소서’의 이행방안을 마련과 실현의 중요성도 주요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장으로 이번 토론을 통해 제안할 내용은 첫째 가톨릭 교구 차원에서 ‘사회교리’ 교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교구 내에서 ‘사회교리’ 학습을 지속하고 있고, 환경강좌, 성직자나 신자들 환경 활동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교리는 인간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를 담고 있다.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 간추린 사회교리 10장 환경보호 그리고 해당장 470에서 ‘인간활동과 기후 변화의 관계가 고려된다. 기후 변화의 극단적인 복합성을 감안하며, 과학 정치 법률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제때에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기후는 보호하여야 할 선익이며, 소비자와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위에 다하여 더욱 큰 책임 이식을 기르도록

일깨워 준다....'를 제시하고 있다. 전 신자 사회교리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활동과 실천에 대한 필요성, 갈망, 확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발제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성당 등 교구 부지내 재생에너지 도입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회용품 안쓰기 실천이나 폐휴대폰수거 등 실천이 있었다. 교구 차원에서 에너지소비, 쓰레기 문제, 성당 해당지역 환경의제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모델과 목표를 설정, 제시하고, 성과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확산성과 관련 제도, 법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찰, 실행이 이루어져야할 큰 과제이다. 우리 시민사회가 가톨릭 등 종교계와의 연대,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그간의 위기에서 종교계가 여러 혜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시대 더욱 더.